“친박 아니라면 가능” … ‘潘-安 연대설’ 국민의당서 모락모락

〈반기문〉 〈안철수〉

安 ‘복심’ 이태규 “潘, 제3지대서 논의 땐 막을 이유 없어”

천정배 전 대표도 “정권교체 나선다면…” 연대 가능성 시사

안철수 전 대표

내년 대선을 겨냥한 잠룡들의 합종연횡 시나리오가 난무하는 가운데 안철수 전 대표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간의 연대설이 국민의당 내부에서 고개를 내밀어 눈길을 끌고 있다.

안 전 대표의 ‘복심’(腹心)으로 불렸던 이태규 의원은 17일 교통방송과의 인터뷰에서 반 총장과의 연대 가능성에 대해 “친박 후보가 아니고 그 어떤 중도를 지향하거나 새로운 어떤 정치의 지형을 꿈꾼다면 같은 논의 테이블에 앉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이어 “그분도 ‘한국사회 변화를 위해서는 제3 지대에서 새로운 논의가 필요하다’고 해서 참여한다면 그걸 굳이 막을 이유는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그는 “친박 후보로 나선다면 아무래도 정치적으로나 정서상으로 같이 연대하기는 어렵다”고 선을 그었으며 양측의 사전 교감에 대해서도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치권에서 거론되고 있는 제3지대와 관련, 이 의원은 “어떤 특정 후보를 중심으로 문제를 풀어가서는 제3지대가 안 만들어진다”며 “어떤 큰 대의를 위해서는 거기에 나도 동등한 입장에서 참여하고 그 결과에 승복하겠다, 이런 자세로 모든 분이 모였을 적에 큰 어떤 제3지대를 형성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안 전 대표 본인도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지금은 시나리오를 말할 단계가 아니며 열심히 치열하게 대한민국 문제의 해법을 고민해야 한다”라고 언급, 거리를 두면서도 여지를 남겼다.

이에 앞서 천정배 전 대표도 지난 주 라디오 방송에 출연, “반 총장이 친박 후보는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정권교체의 길에 나선다면 굉장히 중요한 정치적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해 연대 가능성을 시사하기도 했다.

정치권에서는 이와 관련, 지지율에서 밀리고 있는 안 전 대표가 기득권 포기 선언을 하면서 제3지대를 구체화 하는 승부수를 띠우지 않느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연말 전당대회가 마무리 되고 손학규 전 민주당 대표 등의 정계 복귀가 이뤄지는 등 정치적 상황이 성숙된다면 안 전 대표가 국민의당 내부가 아닌 양 극단을 제외한 제3지대 대선 후보 경선을 주장하면서 대선 판을 흔들 수 있다는 것이다.

정치권 관계자는 “차기 대선 판이 유동적으로 흐르면서 각종 시나리오가 난무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현재 상황으로선 차기 대선과 관련,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들다는 점에서 혼돈의 구도가 상당 기간 계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반기문 유엔사무총장

安, 25일 JP와 회동 … 대선 구상 타진하나

박지원 제안 성사 … 安 외연 확대 계기 될 지 주목

‘반기문 연대설’ 속 潘 밀접한 JP 구상 관심 촉각

국민의당 안철수 전 대표와 김종필(JP) 전 총리가 오는 25일 회동할 예정이어서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17일 국민의당 관계자에 따르면 두 사람과 박지원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시내 모처에서 만찬 회동할 예정이다. 양측은 이번 만찬 장소는 공개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번 회동은 김 전 총리가 지난 8월 인사차 자택으로 찾아온 박 위원장에게 제안해 이뤄지는 것이다. 당시 안 전 대표는 “냉면을 먹으며 더 자세한 말씀을 들을 것”이라고 화답해 차기 대선주자인 안 전 대표와 JP 간의 ‘냉면 회동’이 성사됐다.

애초 약속은 지난달 9일이었지만, 김 전 총리 측이 연기를 요청해 다시 날짜를 잡았다.

최근 안 전 대표가 대권행보에 본격 박차를 가하는 가운데 이번 3자 회동이 지지기반 확대의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측이 “특정 정파에 어정쩡하게 얹혀 갈 생각은 아예 버려야 한다”고 발언하는 등 새누리당 친박(친박)계와 거리를 두려 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반기문-안철수’ 연대론까지 정치권 일각에서 흘러나오고 있어서 이날 회동 내용이 주목을 끌고 있다.

일각에서는 김 전 총리의 중재로 ‘반기문-안철수’ 연대가 가시화하는 것 아니냐 하는 때 이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김 전 총리와 박 위원장은 지난 1997년 대선에서 ‘DJP(김대중-김종필) 연합’을 통해 호남과 충청의 표심을 결합해 정권 창출에 성공한 바 있고, 국민의 정부 당시 각각 국무총리와 문화부 장관으로 일하며 내각에서 호흡을 맞추기도 했다.

김 전 총리는 지난 9월 “(안철수가) 속은 굳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보는데, 좀 기다려 봅시다. 시간이 한 1년은 줘야 돼”라며 안 전 대표에 대한 긍정적 시각을 보여줬다. 또 김 전 총리는 반 총장에 “혼신을 다해 돕겠다”는 뜻을 전달하기도 했다.

정치권 관계자는 이날 “지난 11일에는 당의 동교동계 출신 원로인 권노갑·정대철 상임고문과 오찬 회동을 하면서 대선 행보와 당의 진로 등에 대해 논의하는 등 안 전 대표가 최근 당 안팎을 가리지 않고 많은 인사와 접촉하며 외연 확대에 공을 들이고 있다”며 “그럼에도 25일 회동 자리에서는 연대에 대한 구체적 얘기보다는 차기 대선에 대한 서로 구상들을 어림잡으며 서로 생각을 타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더민주 ‘전경련 해산 촉구결의안’ 엇박자

소속 의원 대규모 서명 불구 추 대표 “당론으로 할지…” 입장 유보적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대표발의한 ‘전경련 해산 촉구 결의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이 대규모로 서명했다. 그러나 추미애 대표와 우상호 원내대표 등 지도부는 해체에 준하는 개혁을 주문하면서도 거리를 두는 모습을 보였다.

추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경련 해체 문제와 관련, “당론으로 할지 말지는 모르겠다”고 유보적 입장을 밝혔다. 이어 “(전경련이) 부패자금 창구역할만 했으니 지금 같은 사회 분위기에서는… 여러분한테는 김영란법 지켜달라고 하면서 하늘 아래 천당처럼 구는 것이 바람직한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그런 것이 여론 아닌가. 당론으로 하기 이전에”라고 덧붙였다.

앞서 우상호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표 경제단체가 뭔가 좀 개혁돼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고 해체에 준하는 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한 바 있다”면서도 “개혁은 그 내부에서 진행되는 게 바람직하지 않느냐”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해산 촉구 결의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대표 경제단체를 당론으로 해체하라고 결의안을 낼 생각은 없다”고 말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가 17일 오전 국회 의안과에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을 주도한 전국경제인연합회의 해체를 촉구하는 ‘전경련 해산촉구 결의안’을 제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에 대해 정치권에서는 자칫 반기업적 이미지가 부각돼 내년 대선을 앞두고 외연 확대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된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지역 우수 뮤지션 창작지원 사전공고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음악창작소에서는 대중음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지역 대중음악인의 다양하고 실험적인 음악이 창작될 수 있도록 자생력 강화와 창작 생태계 조성을 위한 지역우수뮤지션 창작지원사업 사전공고하오니 역량 있는 뮤지션들의 많은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16년 10월 18일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장

사 업 명
지역 우수 뮤지션 오디션 및 쇼케이스 창작지원 사업

사업기간
2016.10 ~ 2017.02(5개월)
예 선 11월 초 – 순천
11월 중순 – 목포 ※ 중복지원 불가
본 선 12월 중순 – 강진(최종선정심사)
쇼케이스 1월 중순 – 서울

온라인 신청(www.ogamtong.com)
※ 상세 일정은 변경 될 수 있으며 음악창작소 홈페이지 (www.ogamtong.com) 공고 예정

※ 10월 20일 세부 시행공고 예정

지원내용
· 오디션에 선발된 뮤지션(개인, 밴드)은 전남음악창작소에서 음반제작 지원, 쇼케이스(서울1회), 온라인 마케팅 및 음반 비즈니스 컨설팅 등의 혜택을 제공
· 미디어(지상파) 음악 프로그램 출연 및 공연행사 참여기회 제공
· 최종 선발된 뮤지션(개인, 밴드)의 창작곡 등의 창작자 권리 보호 및 마케팅 활용 등을 위해 저작권 컨설팅 등 집중관리 지원
※ 1. 오디션 및 쇼케이스 행사 이후 음반제작 · 마케팅 지원은 2017년 2월 이후 진행예정
※ 2. 행사 관련 상금은 없음

지원자격
· 성별, 나이, 학력, 지역제한 없음
· 장르에 구분 없이 순수 창작곡 1곡으로 Live로 연주.
※ 전라남도 및 광주광역시에 주소지가 되어있는 개인 및 그룹(밴드)에 대해서는 가산점 부가

문 의
(재)전남정보문화산업진흥원
전남음악창작소 소장 장용석(061-433-3635/intraii@hanmail.net)